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 경향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 연구: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누미야 요시유키 · 최일호 · 윤덕환 · 서동효 · 한성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가정되어왔던 비현실적 낙관성과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관계를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자들은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이라는 구성개념이 비교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내 변산(개인차) 연구에서도 유용한 분석 틀이며, 특히 비교적 독립적인 두 개의 개념이라고 이해했을 때 심리 현상을 더욱 더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한국 대학생들의 비현실적 낙관성을 연구했다. 그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강한 비현실적 낙관성을 나타낸 일본 대학생들과는 달리,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을 보였으며, 상호독립적 자기관에 비해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비현실적 낙관성과 상관이 있었으나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비현실적 낙관성과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에서 비현실적 낙관성이 나타난 것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약하기 때문이고, 한국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강한 동양 문화권에 속하지만, 상호협조적 자기관뿐만 아니라 상호독립적 자기관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비현실적 낙관성이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을 지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보편성과 다양성의 문제와 비현실적 낙관성을 해석할 또 다른 문화적 요인으로 서 종교적 세계관에 대해 논했다.

최근 심리학에 도입되고 있는 문화 심리학적 관점은 서구에서 발견된 인간의 심리적 경향성 중 많은 것이 인간 보편의 경향성이 아니라 서구 사회에 국한되는 특수한 경향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눈뜨게 하였다(Gergen, 1973; Pepitone & Triandis, 1987).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경험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다. 이중 대표적인 연구가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¹⁾(In-

1) Markus와 Kitayama(1991a)가 제시한 두 개의 개념 구분 'independent view of self'와 'interdependent view of self'에 관해, 北山과 唐澤(1995)은 '상호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은 주변에서 분리된 존재'라는 뜻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고, 또 '의존'이라는 말은 보통 일본어에서는 주체성과 반대의 의미로 쓰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자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자기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주체성을 획득한다'라는 의미의 번역어로서는 '상호협조적'이 '상호의존'보다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기본적으로 한국어에서도 타당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北山 등(1995)의 번역어인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였다.

dependent-Interdependent view of the self)의 틀로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것이었다(Markus & Kitayama, 1991a). 문화심리학 영역에서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개념은 동·서양인의 심리적 과정의 차이를 해석하기 위한 일반적인 분석의 틀로 제시되고 있다(Markus & Kitayama, 1991a; 北山, 1995).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틀은 자기고양 편향(self-enhancing biases)의 특수한 한 형태인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의 연구에도 적용되었다. 비현실적 낙관성이란 사람들이 비슷한 조건의 타인들에 비해서 긍정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 더 적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Weinstein, 1980).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과 타인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평가하게 하여 그 차이를 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Heine와 Lehman(1995)은 서구인으로서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하다고 알려진 캐나다 대학생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다고 인정되는 일본 대학생간의 비현실적 낙관성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 대학생에서는 비현실적 낙관성이 발견된 반면에, 일본 대학생에서는 비현실적 비관성(unrealistic pessimism)이 발견되었다. 즉 캐나다 대학생들은 예를 들어 “앞으로 언젠가 폐암에 걸릴 것이다”와 같은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을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에 비해 자신에게는 더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일본 대학생들은 남들에 비해 자신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더 크게 추정하였다. 그렇다면 같은 동양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대학생도 일본 대학생처럼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비현실적 비관성 경향을 보일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예측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대학생들은 서구인들과 유사하게 강한 비현실적 낙관성을 보이지 않을까. 한국 대학생의 자기관은 같은 아시아인인 일본의 대학생들처럼 상호협조적일 것인가. 만약 한국 대학생의 자기관이 상호협조적인 것이라고 해도 일본 대학생의 그것과는 뭔가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강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지금까지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인정되어 왔지만 이것은 타당한가.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문화적 자기관 이론에서 가정한 것처럼 비현실적 비관성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도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자기고양 편향(self-enhancing biases)의 문화적 보편성과 이것의 특수한 형태인 비현실적 낙관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이것의 이론적 토대가 된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Independent-Interdependent view of the self)과 관련된 연구를 제시한 후,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자기고양 편향(self-enhancing biases)의 문화적 보편성

정확한 현실 파악 능력은 정신건강의 기본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자신과 깊이 관련된 현실에 한해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성이 지적되어 왔다(Greenwald, 1980; Taylor & Brown, 1988). 즉 자기관련 정보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지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 등과 같은 과도한 현실 왜곡은 정신병리의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예컨대 약간 우울한 사람보다) 정확하고 균형감각이 있는 자기지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Taylor & Brown, 1988). Taylor와 Brown(1988)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시키는 경향(자기고양 편향, self-enhancing biases)을 지각내용 자체에 착안해서 긍정적 환상(positive illusions)이라고 명명하고, 이것을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자기관(unrealistically positive views of the self), 과장된 개인적 통제감의 지각(exaggerated perceptions of personal control),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이라는 세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의 범주인 과도하게 긍정적인 자기평가의 예로서는, 미국 대학생의 과반수가 자기의 대인감수

성 수준은 상위 10%에 들어간다고 보고한 사실이나 (Myers, 1996), 미국 대학생은 평균적으로, 기억력, 운동능력, 독립성과 같은 바람직한 속성에 있어 자신보다 우수한 사람이 30%밖에 없다고 지각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b).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도 일관되게 발견되었다(Taylor & Brown, 1988; Weinstein, 1987). 또한 성공과 실패의 귀인 연구에서 자신의 성공은 자기의 내적인 요인, 특히 능력에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실패는 운이나 과제의 난이도 등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 귀인시키는 경향이 알려져 있다(Gilmer & Reid, 1979; Davis & Stephan, 1980; Greenberg, Pyszczynski, & Solomon, 1982; Weiner, 1986). 두 번째의 범주인 과장된 개인적 통제감의 예로서, 사람들이 흔히 도박 같은 실제로는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Langer, 1975). 마지막 세 번째의 범주인 비현실적 낙관성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신에게 좋은 일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안 좋은 일은 더 적게 일어날 것이라는 신념을 말하는 것이다(Weinstein, 1980; Taylor & Brown, 1994). 이러한 자기관련 정보의 긍정적 왜곡은 우울하거나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훨씬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Taylor & Brown, 1994).

그런데 여러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자기고양 편향의 보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일본, 한국, 태국 등에서는 바람직한 특성에 있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고(Markus & Kitayama, 1991b; Heine & Lehman, 1995), 특히 일본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공의 원인으로서의 외적인 요인(과제 난이도, 컨디션, 운)을 더 중요시하는 반면에 실패의 원인으로서의 내적인 요인(노력의 결여, 능력)을 더 중요시하고 있었다(Shikanai, 1978). 지금까지 자기고양 편향에 관한 비교 문화적 연구는 주로 자기평가 영역에 한정되어 왔지만(Heine & Lehman, 1995), 일본 사람의 낮은 통제감을 보고하는 연구(Bond & Tormatzky, 1973; Mahler, 1974)나 비현실

적 비관주의를 보고하는 연구(Heine & Lehman, 1995)도 있다.

이러한 동·서양간의 차이를 일반적인 현상과 그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해석을 비판하면서 北山(1998)은 자기고양 경향도 미국이라는 하나의 문화에서 사는 것을 통해 구성된 것이며 그것이 주관적으로 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겸양 경향도 동양문화에서 사는 것을 통해 구성된 것이며 따라서 주관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러한 심리적 과정을 좌우하는 중심적 문화 자원으로서 문화적으로 공유된 자기관(문화적 자기관)에 주목했다.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

문화적 자기관은 자기고양이나 겸양 같은 심리적 과정의 성질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 현실의 구조나 양식을 구성하고, 그러한 문화적 현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개인이 갖게 되는 자기의식(identity)의 성질에도 큰 영향을 준다(北山, 1998). 이러한 문화적 자기관은 두 개의 전형적인 문화적 자기관 - 특히 구미문화, 그 중에서도 북미 종류 계급에서 우세한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일본을 포함한 동양문화에서 우세한 “상호협조적 자기관” - 으로 구별된다(Markus & Kitayama, 1991a, 1994; 北山, 1995; 北山·唐澤, 1995).

먼저 서구, 특히 북미 종류 계급의 문화는, 자기관 타인에서 분리된 것이라는 신념에 의거하고 있다. 이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그 문화의 다양한 습관, 풍습,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 등에서 파생하는 삶의 과제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에 적응하여 제몫을 하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기 위한 필수조건은 자기자신 속에 자랑할 만한 속성을 발견하여 그것을 밖으로 표현함으로써 자기실현을 도모하고, 그러한 속성의 존재를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중요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독립이 확립된 다음에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일본을 포함한 동양의 문화는, 자기는 타인과 근원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 이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그 문화의 여러 가

지 습관, 풍습,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 등에서 파생하는 삶의 과제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에 적응하여 제몫을 하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에 소속하여 그 속에서 자기에게 알맞은 위치를 차지하고 타인과 상호의존적, 협조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기의 사회적 존재를 확인하여, 이리하여 자기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개인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타인과의 상호공존을 충족시킨 다음에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지나지 않는다(Markus & Kitayama, 1991a; 北山, 1995).

그리고 감정(긍정적 감정의 성질·표정의 식별), 인지(자기인지·타인인지·도덕판단), 동기(일의 성패의 귀인·자기관련 판단) 등의 심리 과정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양 문화권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Markus & Kitayama, 1991a; 北山, 1995; 北山·唐澤, 1995), 이러한 문화간 차이를 해석하는 개념적 틀로서 각 문화에서 공유되어 있는 암묵의 자기관(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라는 개념이 일정한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을 마치 일차원적인 개념처럼 해석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단일 차원의 양극개념이 아니라, 직교하는 이차원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라는 개념은 각 문화의 암묵의 이론을 단순화시켜서 제시한 일종의 이념형(ideal type)이며, 이것들은 어떤 문화에서도 어느 정도 혼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北山, 1995). 山口(1991)가 자기(self)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개관하여 고전적 연구와 최근의 실증적 연구와의 공통점은 자기(self)를 복수의 측면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점에 있다고 정리했듯이,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라는 개념도 개성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는 인간 존재의 양면성을 반영한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성이 전혀 없는 사람도 개성이 전무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문화도 상호독

립적 자기관이 전무한 문화도 존재할 수가 없다.

또한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직교성을 시사하는 경험적 연구의 결과도 있다. 즉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양쪽 다 높은 사람이나 양쪽 다 낮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나(高田, 1992), 어떤 심리적 과정이 상호독립적 자기관과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상호협조적 자기관과는 상관관계가 없거나, 상호협조적 자기관과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상호독립적 자기관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경험적 자료(高田, 1992; 黒川, 1994)는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직교성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과 유사한 맥락에서 개별성-관계성 척도를 제작한 김동직과 한성열(1998)도 자기 존중감이나 의존성, 신뢰성, 고독감 등과 두 변인의 상관 형태를 근거로 두 변인은 양극적이라기보다는 직교적인 관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양쪽 모두 높은 문화나 양쪽 모두 낮은 문화, 또는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균형을 이룬 문화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 틀은 문화간 비교에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개인차를 분석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高田, 大本 및 清家, 1996). 왜냐하면 Markus와 Kitayama(1991a)도 특정한 자기관이 우세한 하나의 문화 내에도 비전형적인 자기관이 우세한 하위집단이나 개인이 존재하는 것을 시사했듯이 어떤 문화 내에서 우세한 자기관에 관한 중심적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변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일본 대학생 가운데서도 음악대학 학생은 일반 대학생보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강했으며, 서구나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음악대학 학생보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강했다(木内, 1996).

자기고양 편향-자기비판 편향과 문화적 자기관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북미 종류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속에 자랑할 만한 속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확인하여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기 정체감 자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문화에서의 육아 방법은, 자기 내부에서 그러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속성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일을 중심으로 삼게 된다. 그 결과 자기 속에 바람직한 속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자기고양이, 북미문화에 있어 자기실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북미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렇게 구성된 자존감정의 수준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자기 속에 있는 바람직한 속성에 관한 정보에 대해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부호화시켜, 그것들에 대해 더욱 더 깊이 또는 넓게 생각하는 인지·감정적 습관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北山, 1995; 北山·唐澤, 1995).

한편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가진 많은 아시아 문화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그 일부로 간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발전하는 것이 자기정의 자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에서의 육아 방식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 자기를 적절히 소속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그 결과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의 기대를 내면화하고, 그러한 이상적 자기상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향상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자신의 특성을 동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수반한다. 동양문화에서 자주 발견되는 자기비판적 경향은 자신의 단점을 교정하고 암묵적인 사회적 기대에 알맞게 행동하도록 노력하는 자기향상 과정의 일부로서 긍정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가진 동양문화의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에 관한 정보에 대해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부호화시켜, 그것들에 대해 더욱 더 깊이 또는 넓게 생각하는 인지·감정적 습관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北山, 1995; 北山·唐澤, 1995).

비현실적 낙관성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은 앞에서도 지정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비슷한 조건의 타인들에 비해서 긍정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 더 많이 일어나

고, 부정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 더 적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Weinstein, 1980). 이러한 경향성은 긍정적인 사건에서 보다 부정적인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크게 나타나며(Weinstein, 1984), 서구인들에게는 나이나 사회, 경제적 계급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Weinstein, 1987). Weinstein(1980)은 비현실적 낙관성의 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사건에 대한 통제감을 중요시했는데, 즉 통제감이 커질수록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Taylor, Kemeny, Aspinwall, Schneider, Rodriguez, 및 Herbert(1992)는 '지각된 위험' 역시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의 주요 결정요소로 생각하였는데, 지각된 위험이 커질수록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 또한 커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은 위협적인 사건들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안녕감을 제공하는 자기방어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는 사건이 위협적일 수록 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Heine와 Lehman(1995) 비현실적 낙관성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비현실적 낙관성이 갖는 자기고양(self-enhancing)의 기능이 상호협조적 자기관(interdependent self)을 가진 동양인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자기(self)는 관계가 중심이 되는 상호협조적 자기관(interdependent self)과 내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독립적 자기관(independent self)으로 나뉘는데(Markus & Kitayama, 1991b),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가진 동양인의 경우 자기고양 편향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망에서 자신을 이탈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상태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적응적 기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고양 편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Markus와 Kitayama(1991a)의 이상과 같은 논의를 부연시켜, Heine와 Lehman(1995)은 자기고양 편향(self-enhancing biases)의 일종인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은,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북미 사람들의 경우와 달리,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가진 일본 사람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

다. 왜냐하면 상호협조적 문화에서는 대인관계의 조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문화적 명령이 있어서, 집단주의적 관계망에서 그 사람을 고립시키는 자기고양적 경향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경향(self-effacement)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하에 캐나다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비현실적 낙관성 수준을 비교한 결과, 캐나다 대학생에서는 예전의 연구와 일관되게 비현실적 낙관성이 나타난 반면에, 일본 대학생에서는 비현실적 낙관성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 비관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비현실적 낙관성의 관계를 시사하는 결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추론적 해석이며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연구문제

비현실적 낙관성 편향은 북미인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이미 강력한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Alloy & Ahrens, 1987; Weinstein, 1980). Taylor와 Brown(1994)는 이것과 관련된 개괄(review) 논문에서 121개 이상의 연구가 이 현상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관된 경향은 북미권에 국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Markus & Kitayama, 1991b; Kashima & Triandis, 1986; Takata, 1992). 즉 이 비현실적 낙관성은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한 이들 나라에서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동양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없거나 약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Heine와 Lehman(1995)은 캐나다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러한 가정의 지지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어떤 경향성을 보일 것인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한국인은 일본과 같이 집단주의적인 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 그렇다면 한국인 역시 낙관성 경향이 없거나 약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특성을 다룬 여러 연구에서는 한국인은 낙관성 경향이 강하다는 주장을 볼 수 있다.

문화 인류학자 Osgood(1951)은 1947년 강화도의 농촌을 조사하면서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탐구했다. 그는 한국인은 모여서 술을 마시고 노

래를 즐기고 춤을 잘 추는 낙천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하였다(김성태, 1987에서 재인용). 차재호(1980)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을 관찰하고 기록한 17개의 문헌들을 조사하여 한국인의 특성을 정리해 본 결과, 행동 양식 면에서 낙관성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재은(1987)은 역사적, 풍토적 고찰을 통해 낙천성을 한국인의 주요 특징으로 보았고, 윤태림(1964) 역시 한국인은 사머니즘과 자연 존중 사상에 근거한 낙관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헌 연구 외에 현재의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한 외환보유고의 과다 추정, 대형사고로 나타난 연속되는 안전불감 증후군과 이것과 연결된 부실공사 등도 한국인의 근거없는 낙관성에 근거한다는 지적이 많다. 즉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은 아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낙관성은 한국인의 한 특성으로서 인정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일본인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비현실적 낙관성이 한국인에게에는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비현실적 낙관성의 경향에 있어서 한국, 일본, 캐나다간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비교의 동등성을 갖기 위해 Heine와 Lehman(1995)이 사용한 비현실적 낙관성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이들의 연구자료와 한국 대학생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비현실적 낙관성 척도에는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평가만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부정적 사건의 심각도와 통제 가능성을 또한 측정하였다. 이것은 비현실적 낙관성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즉 어떤 사건을 심각하게 지각할수록 이런 사건에 대해 더 낙관성을 보인다면, 이것은 비현실적 낙관성이 일종의 방어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일본, 캐나다 대학생들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비현실적 낙관성과 문화적 자기관

간의 관련성의 문제이다. Heine와 Lehman(1995)의 연구에서는 앞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캐나다 대학생들은 비현실적 낙관성을, 일본 대학생들은 비현실적인 비관성을 보였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각 나라의 대학생들이 갖는 자기관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즉 서구의 일원인 캐나다 대학생들은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갖고 있고, 이것은 개인의 개성, 유능성, 강함(invulnerability)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자기고양적 편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 대학생들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갖고 있고, 이것은 개인의 유능성이나 강함보다는 집단내 성원간의 융화와 협조를 강조하기 때문에 비현실적 낙관성과 같은 자기고양적 편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대학생들은 집단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는 자신의 좋은 점이나 잘난 점을 내세우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를 보임(self-effacement)으로써 안녕감을 얻는다는 것이다(Kitayama, Markus, & Kurokawa, 1994). 그러나 캐나다와 일본의 대학생간의 차이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이론적인 것이었다. 즉 실제로 캐나다와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관을 측정해서 이것과 비현실적 낙관성간의 관련을 본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高田 등(1996)이 개발한 자기관 척도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두 개념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Heine와 Lehman(1995)의 설명은 암묵적으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을 일차원적인 개념으로 가정하고 있다. 즉 상호독립적이면 상호협조적이지 않고 반대의 경우도 그렇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이 자기관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지만,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가정했다. 만일 이러한 가정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기존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상호협조적-상호독립적 자기관이라는 이분법적 문화 구분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기존의 연구 가정에서처럼 단일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직교적인 개념이라는 가정하에 각 자기관과 비현실적 낙관성간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았다. 즉 일본인의 비현실적 비관성과 예상된 한국인의 비현실적 낙관성을 설명하는 것은 문화적 자기관의 두 가지 차원 중 상호독립적 자기관 차원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세 번째 문제는 한국문화의 특성 중 하나로 지적되는 가족주의와 비현실적 낙관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의 가족과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 고전적인 연구를 한 최재석(1965)은 한국 문화의 대표적 특징으로 가족주의를 꼽고 있다. 가족주의란 가족 집단의 유지와 그 기능에 가치를 부여하고, 부자관계에서 효를 절대시하고, 생활집단의 단위로 가정을 중시하고 가족관계와 같은 대인관계를 사회관계의 이상으로 보는 경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집단주의는 가족주의적 집단주의라는 점에서 일본의 집단주의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국인의 가족주의 경향이 비현실적 낙관성에 어떻게 반영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새롭게 만든 5개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 문항들은 어떤 부정적 사건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족의 성원 중에 일어날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에서는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족의 성원에게까지 적용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즉 한국 대학생들은 개인적인 낙관성 수준과 가족 대상 낙관성 수준이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현재 가족 문항의 측정 결과는 다른 외국의 비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인적 낙관성 차원과 비교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낙관성 수준이 자신에 대한 낙관성 수준과 비슷하다면, 이것은 일단 가족주의가 강한 문화에서 자신과 가족간의 동일시 수준을 나타내 주는 잠정적 가설을 성립시켜 줄 것이다.

본 연구의 네 번째 문제는 비현실적 낙관성의 경향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비현실적 낙관성과 자기 존중감, 삶의 만족, 그리고 사회적 낙관성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에 대한 평가가 높은, 즉 자기 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비현실적 낙관성의 경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실

생활에 있어서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이 비현실적 낙관성을 높게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다. 그리고 비현실적 낙관성을 갖은 사람은 개인 수준을 넘어 자기가 속한 사회의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인가를 알아보았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경제, 통일, 교육, 삶의 질과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을 측정하는 문항과 비현실적 낙관성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방 법

조사 대상자

본 연구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 수업을 듣는 16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문화권에서 성장한 학생들로서 이 중 남자는 99명 여자는 63명(평균연령 만20.7세)이었다. 설문 조사는 수업 장면에서 단체로 실시하였는데, 성실한 응답을 얻기 위해 조사 후에 결과와 개인의 점수를 각자에게 알려주겠다고 미리 약속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내외였다.

측정 도구

1)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

본 연구에서는 20 문항으로 구성된 Heine와 Lehman (1995)의 비현실적 낙관성 측정 질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한국인의 가족주의적 경향성이 비현실적 낙관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주의 문항을 추가하여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주의 문항은 부정적 사건을 당하는 주체가 가족의 일원으로 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비현실적 낙관성은 ‘긍정적인 일은 남보다 나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일은 남보다 자신에게 적게 일어날 것이라는 신념’이므로 처음의 연구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 모두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비현실적 낙관성이 일관되게 나타났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만을 문항의 내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문화적 차이에 관심을 가진 Heine는 서로 다른 self-concept를 가진 동서양의 사람들이 사건의 내용에 따라 그 심각성을 다르게 느낄 것이라는 가정 하에 independent event를 다른 문항과 Interdependent event를 다른 문항을 구별하여 전체 사건을 구성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비현실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것은 상대적 측정과 절대적 측정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대적 비현실적 낙관성의 측정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당신이 다음의 사건을 겪을 가능성은 얼마인가?”라는 질문 형태에 대한 답을 7점 척도(1점 - 매우 낮다, 7점 - 매우 높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4점 미만일 경우에는 낙관성의 경향성을, 4점 이상의 경우에는 비관성을 나타낸다. 후에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4점을 뺀 형태로 리코딩하여 0점은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부호를 가진 측정치는 낙관성의 경향성을 +부호를 가진 측정치는 비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② 절대적 비현실적 낙관성의 측정

절대적 비현실적 낙관성의 측정에서 피험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받게 된다. 첫째는 “당신이 다음의 사건을 겪을 가능성을 절대적인 퍼센트로 평정하십시오”와 같은 질문이고, 두 번째는 “같은 학교의 동료 학생이 다음의 사건을 겪을 가능성을 절대적인 퍼센트로 평정하십시오”와 같은 형식의 질문이다. 비현실적 낙관성은 첫 번째 질문지에서 얻은 점수와 두 번째 질문지에서 얻은 점수의 차로 측정된다(질문지 1의 측정치 - 질문지 2의 측정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음의 부호이며 그 수치가 커질 수록 비현실적 낙관성은 높게 측정된다.

③ 통제 가능성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통제가능성과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사건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1점(전혀 통제할 수 없음)에서 5점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음)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④ 심각도

두 가지 사건들(independent /interdependent)이 각각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심각도를 1(전혀 심각하지 않음)에서 100(매우 심각함)까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위의 일련의 질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은 건너뛰도록 하였다.

2)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

高田 등(1996)이 제작한 20문항의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개정판)를 번안하여 사용했다. 이 척도는 일본적 자기(高田와 松本, 1995)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일본문화에 특수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Markus와 Kitayama (1991a)의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개념의 측정도구로서 개발되었다.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각각 독립된 차원임을 가정하고 있으며,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독단성”(6문항), “개인 인식·주장”(4문항),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평가염려”(4문항), “친화·순응”(6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일본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전체는 .79, “독단성”이 .72, “개인 인식·주장”이 .74, 상호협조적 자기관 전체는 .78, “평가염려”가 .81, “친화·순응”이 .70이었으며(N=728),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전체는 .82, “독단성”이 .75, “개인 인식·주장”이 .74, 상호협조적 자기관 전체는 .73, “평가염려”가 .72, “친화·순응”이 .54이었다(N=162). 또 본 연구에서의 문항-총점 상관은 상호독립적 자기관 척도의 경우 .52에서 .73, 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의 경우는 .22에서 .76이었다. 요인구조도 큰 차이가 없어 원 척도의 요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3) self-esteem 질문지

10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1965)의 질문지를 사

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Cronbach α) .88이었다.

4) life-satisfaction 질문지

Diener, E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개발한 5 문항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사용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Cronbach α) .78이었다.

5) 사회적 낙관성

개인적 수준의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성이 사회적인 현실을 지각하는 데에도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의 전망에 대한 다섯 문항을 7 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이 질문지의 내적 일치도는(Cronbach α) .50이었다.

결 과

비현실적 낙관성

한국 대학생들은 과연 캐나다 대학생처럼 비현실적 낙관성을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일본 대학생처럼 비현실적 비관성을 나타낼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정적 사건의 유형별로 각각 두 가지 측정방법을 통해 비현실적 낙관성을 측정했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대로 한국 대학생들은 상대평가 측정에서도 절대평가 측정에서도 비현실적 낙관성을 나타냈다. 단 상대평가 측정에 의한 비현실적 낙관성과 절대평가 측정에 의한 비현실적 낙관성 간에는 확실한 정적 상관(개인 지향적 사건, $r=.53$, $p<.01$; 관계지향적 사건, $r=.60$, $p<.01$; 가족관련 사건, $r=.47$, $p<.01$; N=160)이 있었으나, Heine와 Lehman(1995)의 연구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도 상대평가 측정은 절대평가 측정에 비해 비현실적 낙관성을 과대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유는 상대평가에 의한 측정에서는 평가의 준거점이 자기 자신과 부정적인 사건과의 관계로 설정되기 때문이다(Heine & Lehman, 1995). 다시 말하면, 상대적 측정 방식에서 피험자들은 자신과 동일한 조건의 타인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날

표 1. 비현실적 낙관성

상대평가 측정 (N=160)		한국	일본*	캐나다*
개인지향적 사건		-1.15		
관계지향적 사건		-1.24	-0.60	-1.05
가족 관련 사건		-0.94	-0.45	-1.36
절대평가 측정 (N=162)		한국	일본*	캐나다*
개인지향적 사건	자기 평가	26.28	31.92	22.66
	타인 평가	32.72	19.26	30.05
	차 이	-6.51	12.66	-7.39
관계지향적 사건	자기 평가	24.85	31.97	16.16
	타인 평가	25.86	13.16	20.58
	차 이	-1.01	18.81	-4.42
가족 관련 사건	자기 평가	27.60		
	타인 평가	29.59		
	차 이	-1.94		

주: 1. *는 1995년 Heine와 Lehman의 논문에서 인용.

2. 음수의 절대치가 클수록 비현실적 낙관성이 강함을 의미함.

표 2. 개인지향적 사건, 관계지향적 사건 및 가족관련 사건간의 심각도 및 통제감 비교

		한국	일본*	캐나다*
심각도	개인지향적 사건	72.63	75.14	75.40
	관계지향적 사건	68.95	77.87	69.04
	가족 관련 사건	74.99		
통제감	개인지향적 사건	3.83	3.21	3.70
	관계지향적 사건	3.91	3.52	3.73
	가족 관련 사건	3.01		

주: *는 1995년 Heine와 Lehman의 논문에서 인용.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결국, 비현실적 낙관성을 과대 추정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하 본 연구에서는 절대평가로 측정한 비현실적 낙관성에 의거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생처럼 비슷한 조건의 타인들에 비해서 부정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 더 적게 일어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 유형별로는 특히 개인지향적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이 관계지향적인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r = -5.46, p < .01$). 이것은 캐나다 대학생들이 보인 패턴과 유사한 것이다(Heine & Lehman, 1995). 즉 한국 대학생들도 개인지향적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이라는 일종의 자기고양 편향으로 떠받쳐야 되는 만큼 강한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한다.

또 한국 대학생들은 가족관련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 편향도 보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개인지향적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 편향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개인지향적 사건, 관계지향적 사건 및 가족관련 사건간의 심각도 및 통제감 비교

자기관에 따라 부정적 사건에 대한 지각된 심각도와 통제감에 있어 차이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부정적 사건의 유형별로 심각도와 통제감의 평균치를 비교하였다(표 2 참조). 먼저 부정적 사건의 심각도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캐나다 대학생들이 개인지향적 사건을 관계지향적 사건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일본 대학생들은 개인지향적 사건보다 관계지

향적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Heine & Lehman, 1995), 한국 대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생들처럼 개인지향적 사건을 관계지향적 사건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98, p<.01$). 이것도 한국 대학생들이 강한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다만, 통계학적 유의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한국 대학생들의 지각된 심각도가 개인지향적 사건에서도 관계지향적 사건에서도 다른 두 나라 대학생들보다 낮은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가족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지향적 사건 못지 않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 사건들에 대한 통제감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캐나다 대학생들이 개인지향적 사건과 관계지향적 사건간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일본 대학생들은 개인지향적 사건보다 관계지향적 사건을 더 통제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Heine & Lehman, 1995), 한국대학생들은 이번에는 일본 대학생들처럼 개인지향적 사건보다 관계지향적 사건을 더 통제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0, p<.05$). 이러한 결과는 Heine와 Lehman(1995)의 논의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 대학생들처럼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전반적인 통제감 수준이 일본 대학생은 물론 캐나다 대학생보다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비현실적 낙관성과 심각도 및 통제감간의 관계

Weinstein(1980)은 비현실적 낙관성의 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사건에 대한 통제감을 중요시하여, 통제감이 커질수록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지향적 사건($r=.35, p<.01$)과 관계지향적 사건($r=.43, p<.01$)에 있어서는 통제감이 커질수록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것은 부정적 사건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에게는 적게 일어날 것

표 3. 비현실적 낙관성과 심각도 및 통제감간의 편상관계

	비현실적 낙관성		
	개인지향적 사건	관계지향적 사건	가족관련 사건
통제감	.35**	.43**	.14
심각도	.12	.00	.21**

주: 1. * $p<.05$, ** $p<.01$

2. 비현실적 낙관성이 음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는 음수의 상관계수가 비현실적 낙관성과 기타 변인과의 정적 상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응관계는 해석하기 때문에 상관계수의 부호를 바꿔서 제시하였다.

이라는 비현실적 낙관성을 합리화하는 근거로서, “나는 그러한 사건의 발생 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통제감이 낮을수록 비현실적 낙관성을 갖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자신이 아닌 가족 성원중의 누군가가 부정적 사건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합리화 기제의 작동할 여지가 별로 없어 가족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통제감과 비현실적 낙관성간에 상관이 없는 것도 당연하다.

또한 Taylor 등(1992)은 ‘지각된 위협’ 즉 부정적 사건의 지각된 심각도 역시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생각하였는데, 지각된 위협이 커질수록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 또한 커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은 위협적인 사건들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안녕감을 제공하는 자기방어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기제가 한국 대학생의 경우 가족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나타났으나($r=.21, p<.01$), 개인지향적 사건과 관계지향적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어기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가족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무의식적 방어기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다.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

한국 대학생들의 문화적 자기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상호독립적 자기관보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상호독립적 자기관 4.87, 상호협조적

자기관 5.13; $t=2.17$, $p<.05$). 이것은 동양 문화에서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다는 Markus와 Kitayama (1991a)의 분석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표 4 참조). 그리고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하위 영역에서는 “독단성”이 “개인 인식·주장”보다 높았으나(“독단성” 4.93, “개인 인식·주장” 4.78; $t=-2.52$, $p<.05$),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하위 영역에서는 “평가염려”와 “친화·순응”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패턴은 일본 대학생의 자기관 패턴과 유사한 것이다(高田 등, 1996).

그러나 한일간의 차이점이 각 하위 영역의 수준에 있어 나타났다. 즉 한국 대학생들은 “독단성”, “개인 인식·주장”, “평가염려”, “친화·순응”이라는 모든 하위 영역의 수준이 일본 대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독단성”, 한국 4.93 / 일본 4.49, $t=5.51$, $p<.01$; “개인 인식·주장”, 한국 4.78 / 일본 4.23, $t=6.38$, $p<.01$; “평가염려”, 한국 5.12 / 일본 4.94, $t=2.06$, $p<.05$; “친화·순응”, 한국 5.13 / 일본 4.94, $t=3.51$, $p<.01$)(高田 등, 1996). 한일간의 이러한 차이가 문화적 자기관의 실질적인 차이인지는 일본인의 응답 경향에 대해 극단적인 대담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山岸·小杉·山岸, 1996)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평가염려”와 “친화·순응”으로 구성되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에서도 “독단성”과 “개인 인식·주장”으로 구성되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에서 차이가 더 큰 것을 보면 한국 대학생은 상호협조적 자기관뿐만 아니라 상호독립적 자기관도 상당히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비현실적 낙관성간의 상관

한국 대학생들의 비현실적 낙관성과 일본 대학생들의 비현실적 비관성을 문화적 자기관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 우리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비현실적 비관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결여가 비현실적 비관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비현실적 낙관성과 관계가 있는 것은 자기관

표 4.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 및 하위영역의 평균치

N=162	상호독립성	상호협조성
	4.87	5.13
	독단성	개인 인식·주장
	평가염려	친화·순응
	4.93	4.78
	5.12	5.13

최대치=7, 중간치=4, 최소치=1

의 두 가지 차원 중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아니라 상호독립적 자기관일 것이라는 예상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r=-.41$, $p<.01$, $N=162$)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다른 차원의 자기관을 통제 한 편상관을 알아봤다. 이 결과는 표 5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비현실적 낙관성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지향적 사건 $r=.27$, $p<.01$; 관계지향적 사건 $r=.18$, $p<.05$). 한편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비현실적 낙관성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네 가지 하위 영역과 전체 및 사건 유형별 비현실적 낙관성과의 좀더 자세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네 가지 하위 영역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여 나머지 세 개 하위 요인들을 통제한 편상관계수를 구했다(표 5 참조). 그 결과 상호독립적 자기관 가운데서는 “독단성” 요인은 비현실적 낙관성과 아무 관계도 없고, “개인 인식·주장”요인만이 개인지향적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r=.18$, $p<.05$) 및 관계지향적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r=.24$, $p<.01$)하고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호협조적 자기관 가운데서는 흥미롭게도 “평가염려”요인은 개인지향적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하고 부적 상관($r=-.17$, $p<.05$)이 있는 반면에 “친화·순응”요인은 개인지향적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과 정적 상관($r=.23$,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관련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은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었다.

표 5. 자기관과 비현실적 낙관성간의 편상관 관계

N=162	비현실적 낙관성			
	개인지향적 사건	관계지향적 사건	가족관련 사건	전체
상호독립적 자기관	.27**	.18*	.03	.22**
상호협조적 자기관	.07	-.06	.01	.00
독단성	.04	.07	-.05	-.03
개인 인식 · 주장	.18*	.24**	.08	.22**
평가염려	-.17*	-.13	-.05	-.16*
친화 · 순응	.23**	.03	.05	.14

주: 1. * $p < .05$, ** $p < .01$

2. 비현실적 낙관성이 음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는 음수의 상관계수가 비현실적 낙관성과 기타 변인과의 정적 상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응관계는 어색하기 때문에 상관계수의 부호를 바꿔서 제시하였다.

표 6. 비현실적 낙관성과 생활만족도, 자기존중감, 및 사회적 낙관성의 상관 관계

N=162	개인지향적 사건	관계지향적 사건	가족관련 사건	전 체
생활만족도	.21**	.21**	.15	.24**
자기존중감	.25**	.38**	.10	.34**
사회적 낙관성	-.04	.17*	-.02	.06

주: 1. * $p < .05$, ** $p < .01$

2. 비현실적 낙관성이 음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는 음수의 상관계수가 비현실적 낙관성과 기타 변인과의 정적 상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응관계는 어색하기 때문에 상관계수의 부호를 바꿔서 제시하였다.

비현실적 낙관성과 생활만족도, 자기존중감 및 사회적 낙관성간의 상관

생활만족도와 개인지향적 사건 및 관계지향적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존중감과 개인지향적 사건 및 관계지향적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간에도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현실을 왜곡할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은 자기자신이 아닌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또 사회적 낙관성과 전반적인 비현실적 낙관성간에는 상관이 없었으나 관계지향적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하고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자기자신의 사회적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신념을 가질수록 사회전체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자들은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이라는 구성개념이 비교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내 변산(개인차) 연구에서도 유효한 분석 틀이며, 특히 비교적 독립적인 두 개의 개념이라고 이해했을 때 심리현상을 더욱 더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한국 대학생들의 비현실적 낙관성을 연구했다.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는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이라는 개념을 일차원적 양극 개념으로 간주할 경우가 있었고, 비현실적 낙관성(-비관성)과의 관계를 추론할 때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에서는 비현실적 낙관성이 나타나고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에서는 비현실적 낙관성은 없고 오히려 비현실적 비관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을 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 사람을 본다면 종래 동양적인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되어 왔던 한국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로 규정될 것이고, 따라서 자기고양 편향의 일종인 비현실적 낙관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일본 사람처럼 비현실적 비관성이 나타날

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한국 대학생들은 비현실적 비판성이 아니라 비현실적 낙관성을 보였으며, 상호 독립적 자기관에 비해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강하긴 했으나 일본 대학생들에 비해 상호독립적 자기관도 상당히 강한 특징이 있었다. 이 두 가지의 결과는 상호 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이라는 개념을 일차원적 양극 개념으로 간주하면 해석할 수 없으나, 독립적인 두 개의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모순이 풀린다. 즉 상호 독립적 자기관은 비현실적 낙관성과 상관이 있고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비현실적 낙관성과 상관이 없다면, 일본에서 비현실적 비판성이 나타난 것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약하기 때문이고, 한국에서는(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강하지만) 상호독립적 자기관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비현실적 낙관성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 알아본 비현실적 낙관성과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간의 상관분석 결과도 그 예상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직접적인 비교문화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비현실적 낙관성과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간의 관계가 일본이나 캐나다에서도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

또 하나의 제한점은 본 연구에서 측정된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그 내용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高田(1992)의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를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생에게 실시한 경우 일본에서처럼 4요인 구조(독단성, 자기인식·주장, 평가염려, 친화·순응)가 되지 않고, 상호독립성과 상호협조성의 2요인이 주로 추출되었다(高田 등, 1996). 한국인이나 일본인의 경우, 타인에게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에만 의거해서 행동하는 것은, 타인과 다른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자기인식·주장”과는 구별되는 차원인 “독단성”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북미 문화에서는 그 양자가 자연스럽게 일체화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일 수 있다. 또한, 북미 문화에서는 하나의 상호협

조적 자기관으로서 파악되는 타인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인지 가운데서도,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의식은 항상 “평가염려”로서 인식될 만큼 특별한 것일 수 있다(高田 등, 1996).

그리고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권 내부에서도 그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화적 자기관을 서양의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동양의 상호협조적 자기관으로 크게 분류한 北山(1998)은 일본에서 역할과 정서적 관여라는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구현화된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는 상이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이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유사한 맥락에서 김동직과 한성열(1998)이 제작한 개별성 - 관계성 척도의 요인구조와 高田 등(1996)이 제작한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의 요인구조를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자기관의 차이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일본에서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하위 요인으로 인식되어 있는 “평가염려” 요인의 문항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한국에서는 관계성의 하위 요인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성의 하위 요인으로 지각되어 있는 “타인의식” 요인의 문항들(역채점 문항)에 들어가 있다. 이것의 의미는,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자기에 대한 평가를 염려해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못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주로 강한 상호협조적 자기관(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반면에, 한국에서는 개별성(상호독립적 자기관)이 부족한 사람의 특징인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두 개의 척도를 한일 간에서 교차해서 사용하고 추출되는 요인구조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이점 이외에도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실증적인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에서는 자신과 가족을 동일시하는 경향 때문에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족의 성원에게까지 적용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즉 한국 대학생

들은 개인지향적 사건에 대한 낙관성 수준과 가족관련 사건에 대한 낙관성 수준이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은 가족관련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 편향도 보이고 가족관련 사건에 대해서 개인지향적 사건 못지 않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상과는 달리 개인지향적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 편향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개인차 차원에서는, 가족관련 사건에 대한 지각된 심각도가 커질수록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가족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Taylor 등(1992)이 지적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무의식적 방어기제가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의 연구는 가족주의적 경향과 가족관련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알아보지는 않았으나 가족관련 사건에 대한 지각된 심각도를 가족주의적 경향의 하나의 지표로 본다면, 위의 결과는 가족주의적 경향과 가족관련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간의 정적 상관 관계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비교적 확대되는 청년기에 있는 대학생이 아니라 아동기나 성인기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과 가족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더 강해서 가족관련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 수준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후속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자기 존중감이나 생활만족도는 개인지향적 사건 및 관계지향적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과 정적 상관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현실을 왜곡할 경향이 있다는 Taylor와 Brown(1988) 등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은 자기자신이 아닌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는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가족주의적 경향이 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역시 나타날지 여부도 후속 연구의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인간관의 일종인 문화적 자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비현실적 낙관성을 분석했다. 그러나 문화적 자기관 이외에도 비현실적 낙관성을 해석할 수 있는 문화심리학적 시각이 당연히 존재할 것

이다. 그 점에 대해서 비현실적 낙관성 편향과 세계관의 관계에 관한 뜻밖의 발견이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 가운데서 기독교인(천주교인과 개신교인, $N=73$)은 무종교인($N=66$)보다 개인지향적 사건과 가족관련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개인지향적 사건, 기독교인 -8.87 / 무종교인 -4.32 , $t=-2.15$, $p<.05$; 가족관련 사건, 기독교인 -4.38 / 무종교인 2.12 , $t=-2.53$, $p<.05$). 그러나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나 자기존중감, 생활만족도에 관해서는 기독교인과 무종교인간에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비현실적 낙관성이 높은 것은 문화적 자기관 등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또 비현실적 낙관성과 통제감 및 심각도의 관계에서도 기독교인과 무종교인간에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났다. 즉 비현실적 낙관성과 통제감의 관계에 있어서 무종교인의 경우 부정적 사건에 대한 통제감을 느낄수록 비현실적 낙관성이 높아지는데(개인지향적 사건 $r=.49$, $p<.01$; 관계지향적 사건 $r=.50$, $p<.01$; 가족관련 사건 $r=.27$, $p<.05$), 기독교인의 경우는 통제감과 비현실적 낙관성과는 상관이 없었다. 무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부정적 사건의 발생 여부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비현실적 낙관성을 합리화하고 있는데 비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러한 개인적 통제감의 환상에 의거한 합리화 기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현실적 낙관성과 심각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의 경우, 부정적 사건에 대한 심각도를 강하게 지각할수록 비현실적 낙관성이 높아지는데(개인지향적 사건 $r=.25$, $p<.05$; 가족관련 사건 $r=.31$, $p<.01$), 무종교인의 경우는 심각도와 비현실적 낙관성과는 상관이 없었다. 기독교인들은 부정적 사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기제로서의 역할을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이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무종교인들에게는 그러한 방어기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대신 부정적 사건에 대한 심각도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또 다른 종류의 방어기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개인지향적 사건, 기독교인 74.88 / 무종교인 70.55, $t=2.13$, $p<.05$; 관계지향적 사건, 기독교인 71.84 / 무종교인 65.64, $t=2.57$, $p<.05$; 가족관련 사건, 기독교인 77.69 / 무종교인 70.56, $t=2.76$, $p<.01$).

장차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정적 사건들은 누구에게도 위협적인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다 그러한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심리적 방어책을 강구하기 마련인데 어떤 방어기제가 선택되느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 기독교인과 무종교인을 비교했을 때, 무종교인들은 부정적 사건들의 심각도를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하면서 자기자신의 통제능력에 힘입어 부정적 사건들의 발생 빈도도 약간 낮게 추정하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부정적 사건들의 심각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대신에 그 발생 빈도를 아주 낮게 추정한다. 왜 그러한 사건들이 자신에게는 별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건 발생 여부에 대한 개인적 통제감의 환상이 아니라 일신교적 세계관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黒川正流(구로카와 마사나가)(1994). 相互依存性の性質と自己解釋圖式が對人影響行動に及ぼす効果の検討. 平成 4・5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 木内亞紀(기우치 아키)(1996). 獨立・相互依存的自己理解: 文化的影響, およびパーソナリティ特性との關聯. 心理學研究, 67, 308-313.
- 北山 忍(기타야마 시노부)(1995). 文化的自己觀と心理的プロセス. 社會心理學研究, 10, 153-167.
- 北山 忍(기타야마 시노부)(1998). 自己と感情: 文化心理學による問ひかけ. 共立出版株式會社.
- 北山 忍(기타야마 시노부)・唐澤眞弓(가라사와 마유미)(1995). 自己: 文化心理學的視座. 實驗社會心理學研究, 35, 133-163.
- 김동직・한성열(1998). 개별성 - 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71-93.
- 김성태(1987).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인문논집.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32, 119-134.
- 김재은(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 문헌 및 조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高田利武(다카타 토시타케)(1992). 獨立的 - 相互依存的自己と自尊感情および社會的比較. 日本グループ・ダイナミックス學會第40回大會發表論文集, 109-110.
- 高田利武(다카타 토시타케)・松本芳之(마츠모토 요시유키)(1995). 日本的自己の構造 - 下位様態と世代差. 心理學研究, 66, 213-218.
- 高田利武(다카타 토시타케)・大本美千恵(오오모토 미치에)・清家美紀(세이케 미키)(1996). 相互獨立的 - 相互協調的自己觀尺度(改訂版) の作成. 奈良大學紀要, 24, 157-173.
- 山口 進(야마구치 수수무)(1991). 「自己」の視點からの集團および文化差へのアプローチ. 社會心理學研究, 6, 138-147.
- 山岸みどり(야마기시 미도리)・小杉素子(고수기 모토코)・山岸俊男(야마기시 토시오)(1996). 國際比較質問紙調査における黙從傾向統制のための方法. 社會心理學研究, 12, 33-42.
- 윤태림(1964). 한국인의 성격.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 차재호(1980). 한국인의 성격과 의식. 한상목・차재호・이문웅・양춘・안병만・신유근 편, 문화의 연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 최재석(1965).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민음사.
- Alloy, L., & Ahrens, A. H.(1987). Depression and pessimism for the future: Biased use of statistically relevant information in predictions for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366-378.
- Bond, M. H., & Tornatzky, L. G.(1973). Locus of control in students fr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imensions and levels of response. *Psy-*

chologia, 16, 203-213.

- Davis, M. H., & Stephan, W. G.(1980). Attributions for exam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0*, 235-248.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 measure of globa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Gergen, K. J.(1973). Social psychology as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309-320.
- Gilmor, T. M., & Reid, D. W.(1979). Locus of control and causal attribution for positive and negative outcomes on university examinat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3*, 154-160.
-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1982). The 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 Beyond self-present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56-67.
- Greenwald, A. G.(1980). The totalitarian ego: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8.
- Heine, S. J., & Lehman, D. R.(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Kashima, Y., & Triandis, H. C.(1986). The self-serving bias in attributions as a coping strategy: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83-97.
- Kitayama, S., Markus, H., & Kurokawa, M.(1994). *Cultural views of self and emotional experience: Does the nature of good feelings depend on culture?* Unpublished manuscript, Kyoto University, Kyoto, Japan.
- Langer, E. J.(1975) The illusion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311-328.
- Mahler, I.(1974). A comparative study of locus of control. *Psychologia, 17*, 135-139.
- Markus, H., & Kitayama, S.(1991a).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 Kitayama, S.(1991b). Cultural variation in self-concept. In G. R. Goethls & J. Strauss (Eds.),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the self*. Springer-Verlag.
- Markus, H., & Kitayama, S.(1994).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Implication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Bulletin, 20*, 568-579.
- Myers, D.(1996) *Social Psychology*. 5th ed. New York: McGraw Hill.
- Pepitone, A., & Triandis, H. C.(1987). On the universality of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 471-498.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kanai, K.(1978). Effects of self-esteem on attribution of success-failure.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47-95.
- Takata, T.(1992, June). *Self-deprecatative social comparison in Japa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otion and Culture, Eugene, OR.
- Taylor, S. E., & Brown, J. D.(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 Brown, J. D.(1994). "Illusion" of mental health does not explain positive illusions. *American Psychologist, 49*, 972-973.
- Taylor, S. E., Kemeny, M. E., Aspinwall, L. G., Schneider, S. G., Rodriguez, R., & Herbert, M.

- (1992). Optimism, coping, psychological distress, and high-risk sexual behavior among men at risk for AI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60-473.
- Weiner, B.(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emotion and motiva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Weinstein, N. D.(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06-820.
- Weinstein, N. D.(1984). Why it won't happen to me: Perceptions of risk factors and susceptibility. *Health Psychology*, 3, 431-457.
- Weinstein, N. D.(1987). Unrealistic Optimism about susceptibility to health problems: Conclusions from a community-wide sampl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0, 481-500.

The relationship between Unrealistic Optimism and Independent-Interdependent Construals of Self in Korean Culture

Yoshiyuki Inumiya, Il-Ho Choi, Deok-Hoan Yoon, Dong-Hyo Seo, & Seong-Yeul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unrealistic optimism and independent-interdependent construals of self in Korean culture, which has been assumed through cross-cultural studies. In assumption that independent construal and interdependent construal of self are relatively independent, we studied Korean students' optimism bias. As result, in contrast to Japanese students who showed strong unrealistic pessimism bias, Korean students showed unrealistic optimism bias. And though their independent construal of self was weaker than their interdependent construal of self, it was considerably stronger than Japanese independent construal of self. Furthermore, optimism bias was related to the independent view of self, but it wasn't related to the interdependent view of self. These results suggest that pessimism bias of the Japanese is not due to the strong interdependent view of self but to the weak independent view of self, and that the Koreans showed optimism bias because they have rather strong independent construal of self as well as strong interdependent construal of self on which Eastern cultures insist. We also discussed universality and diversity of independent-interdependent construals of self and proposed the concept of religious world view as another cultural factor that explains unrealistic optimism.